

고창지역 학생 3명에 장학금 전달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완)은 6월21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고창지역 저소득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결연후원사업을 통해 후원된 것이다.

선발된 고창지역 18세 미만 중·고교생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4명에게는 매월 5만원씩이 졸업 때까지 지원된다.

또, 결연후원금을 지원받는 학생에게는 복지관이 사레관리와 가족상담 및 결혼준비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도완은 "이번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열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복지사장

군법당서 자원봉사 무각사 108정진회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의 신형모임인 '108정진회(회장 강정순)'는 전남 장성 육군보병학교 무각사(지도법사 해욱)에서 매월 군포교를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6월 20일 400여 장병이 참석한 정기법회에서는 회원들이 마련한 떡볶이 등 간식이 군장병들에게 전달됐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강정순 회장은 "자정인 새벽기도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20여 명의 회원들이 기거부함을 했고, 청학 스님의 권유로 군부대 법회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노스님 위한 수행마을 만든다

고창 선운사, 27일 착공... 운영법인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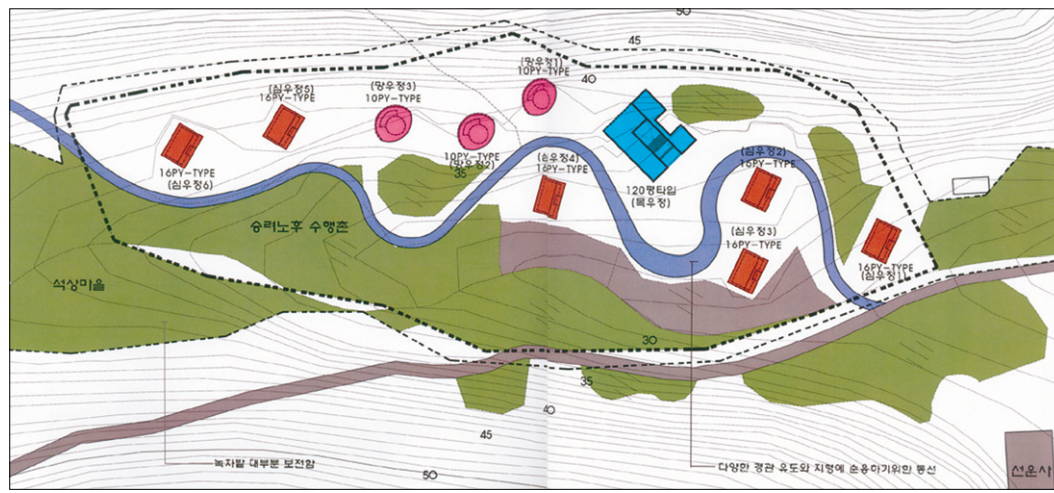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이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준비 중인 가운데, 노스님들을 위한 수행공간인 승려노후수행마을이 첫 삽을 떴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은 6월 27일 선운사 인근 석상마을에서 승려노후수행마을 착공식을 병행했다.

승려노후수행마을은 일평생 수행과 중생제도에만 전념하며 무소유의 청빈한 삶을 이어간 노스님들의 복지를 위한 수행시설이다. 선운사는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석상마을 2만㎡(6000여 평)의 부지에 도로(황토길), 상하수도, 전기 통신 지중화사업 등 기반시설을 갖추고 스님들을 위한 주거시설 건립에 들어간다.

석상마을에 세워지는 스님들의 주거시설은 스님들의 생활방식을 고려해 단독 혹은 2~3인형 개별구조로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주변도림공원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도록 전통 한옥형식으로 지어지며, 선농 일체의 정신을 유지하며 소일거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옥마다 한마지기의 텃밭도 제공한다.

승려노후수행마을에는 제24교구



지난 2월 선운사 승려노후수행관 공모전에서 수상한 안대만, 안성원(씨드아키텍 건축사무소)의 '실우도를 따라건다' 조감도.

선운사 재적 스님 중 승남 30년 세수 65세 이상의 노스님들이 우선 입주하며, 입주에 관련한 일체의 금전은 받지 않고 교구 차원에서 노스님들의 복지를 책임진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승려노후수행마을에 입주한 스님들에게는 입지에 이르기까지 안정된 주거와 수행처 제공만이 아니라 매월 수행연금을 지급한다. 간병, 수발 등

의료복지도 선운사가 담당한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입주 노스님들을 위해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고창병원, 정읍박병원 등 복지·의료시설과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적인 의료 제공을 위한 교육과 요양돌봄, 간병인 등 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선운사는 별도 복지법인을 설립해 승려노후수행마을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날, 선운사는 승려노후수행마을을 운영할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도 개최했다.

주지 법만 스님은 "법인이 설립되면 노후수행마을을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보은법 판매, 선우명차 등 선운사와 지역 특산물 판매 등 수익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celana@buddhanews.com

전주교도소 불교교리 퀴즈대회

전주교도소 불교교정위원회는 6월 24일 전주교도소 법당에서 '불교교리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금산사이원일 사무국장 사회로 삼귀의, <반야심경> 불독, 정음 일광사 승천 스님의 법문과 교리 퀴즈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자가 문제를 내어주고 답을 맞추면 앞으로 스님과 보살들에게 선물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 교리 퀴즈대회에서는는 수건, 칫솔, 치약



6월 24일 전주교도소에서 열린 불교교리퀴즈대회 모습.

등 상품과 초코파이 등 간식이 제공됐다.

한편, 대회 상품은 정음 신선암 지공 스님과 진안 탐사진성 스님, 승천 스님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조동제 전북복지사장

부산 범어사 약사전 점안식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6월 22일 약사전 점안식을 병행했다.

정여 스님은 범어를 통해 "약사여래께서 이 땅에 나투신 참 뜻과 12대 서원의 원력이 우리 모두에게 명훈가피로 나타나기를 바라며, 특히 제병안락(除病安樂)의 서원이 어려움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약사전은 약사여래를 주불로 하고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좌우보처로, 동방각사유리광회상도를 후불탱화로 모셨다. 약사전 전각 기둥에는 "동방만월세계 약사유리광부처님/ 은갖 병고로 신음하는 모든 중생/ 어린 의사로서 곳곳에 나투시어/ 모든 병마 한순간에 물리치셨네"라는 문구가 한글 주련으로 조각돼 있어 여느 전각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약사전이 자리한 곳은 불사 전각지 휴휴암이곳은 과거에 주지 소임

이 끝나면 보임처로 주석하던 도량에 있던 것이다. 범어사는 약사전 조성을 위해 전각 방향을 바꾸고 불단을 만들어 새롭게 신축했다.

약사전은 5~6평 남짓한 크기이다. 큰 규모로 조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한 관계자는 "범어사는 문화재 사찰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크게 지을 경우 문화재관리법에 따라야하고 원래 전각의 규모 그대로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라시대는 빈번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찰자가 발생했고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미륵신앙과 화엄신앙이 태동됐다. 약사여래 신앙은 이후 구원적 내세적 신앙들과 더불어 점차 민간신앙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당시 호국사찰로서 이름을 날렸던 범어사의 태생적 상황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번 약사전 불사는 여러 면에서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가 너무안되고,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조차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만능의 사람이거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회를 미리 쫓고 집구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취급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풀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무동산중개소, 미미홍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방,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목장,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영사무소, 인경점, 신발매점, 전자제품매점, 미용실, 방앗간, 공방, 주유소, 신세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블루베리축제 템플스테이

익산의 천년고찰 승림사가 지역축제인 블루베리축제와 연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익산 승림사(주지 지광)는 6월 19~20일 장수마을인 승전마을에서 열리는 축제와 연계한 '블루베리축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템플스테이 지정사찰로 지정된 승림사가 지역 축제인 블루베리 축제와 연계해 마련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것이다.

행사에서는 불교문화인 참선과 발우공양, 다도, 사찰에 접 슬의, 스님과의 대화 등 사찰문화 체험을 비롯해 블루베리 수확체험, 음료시음, 블루베리 케이크만들기, 문화예술 공연, 전통놀이체험 등이 펼쳐져 30여 참가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광 스님은 "도시와 농촌

의 이해증진과 사찰과 지역민간의 공생관계를 모색하고, 시골의 푸근한 정을 듬뿍 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서울 수유동에서 딸과 함께 참가한 신진희(44세)씨는 "평소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나 하고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복지사장



19~20일 익산 승림사에서 개최한 블루베리축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날뽀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7월 8일 경봉 스님 추모법회

7월 8일 영축총림 극락호국선원에서 경봉스님 28주기 기념법회가 봉행된다.

경봉당 정석 스님은 상구보리 화하중생을 몸소 실천한 큰스님이다. 1932년 통도사 불교전문강원장에 취임한 뒤부터 50여 년 동안 한글 교자 중생교화의 선구적 소임을 다했다. 1935년 통도사 주지, 1941년 조선불교중앙선리장구원(현 선학

원) 이사장을 거쳐 1949년 4월에 다시 통도사 주지에 재임했다. 이후 1953년 극락호국선원 조실에 추대되어 임직하던 날까지 이곳에서 설법과 선문답으로 법을 구하려 찾아오는 불자들을 지도했다.

이에 극락호국선원은 추모재를 봉행해 많은 사부대중에게 선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고,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조차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 중에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 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

자동차사고 예방과 생명보호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증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날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자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톱 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30% 할인)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호신불규격 직경 : 3.5cm, 세로 4.5cm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다크어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목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 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저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약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치가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붙여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저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급속에 평생 냉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 공금 가격별 상담요)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 협 : 032-12-193445 이상하